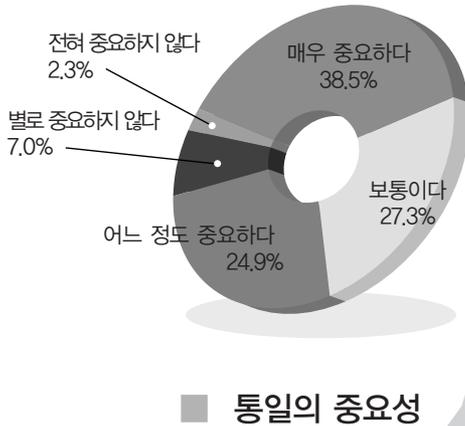


우리의 소원은 통일

남한과 북한의 인구비(48,082만명 : 22,709만명), 남한과 북한의 평균 수명(80.7세 : 73.9세), 인구만명당 대학 생수(631명 : 233명, 남한이 북한에 비해 2.7배 높음), 남한과 북한의 무역총액(남한이 북한의 181.9배 높음)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한민족이다. 남북이 분단된지 언 60여 년이 지난 오늘,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있다. 언제쯤 통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있는지, 이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 통일은 멀게만 느껴진다.

남북정상회담 개최 희망 32.9%(성인남녀 1,000명 대상)

대통령 자문기구인 '민주평통자문회의(이하 민주평통, 수석부위원장 김상근)'에서 성인 남녀 1,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'폴리시앤리서치'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32.9%가 새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. 이는 민주평통의 2005년 동월 조사와 비교할 때 16.6% 증가한 수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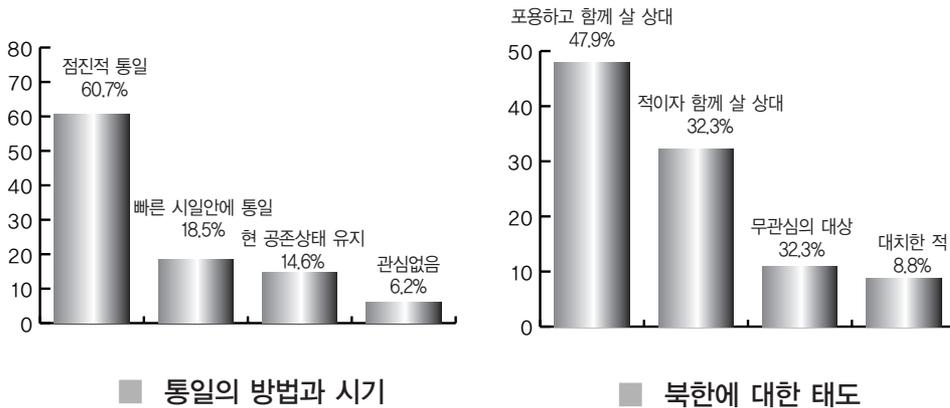
이 외 국민 21.7%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새해 꼭 성사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북한의 개혁·개방을 꼽았으며 18%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꼽았다.

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'북한의 선(先)핵 포기' (40.7%)와 '북한의 핵 포기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가 동시 실행돼야한다' (40.8%)는 의견이 '미국이 먼저 대북제재를 해제해야한다' (16.8%)는 의견을 제치고

압도적으로 나타났다.

설문조사는 또, 국민 61.7%가 6자회담 참여국 중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미국을 지목했다.

향후 한미동맹 방향과 관련해서 ‘점진적 재조정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1.6%로 제일 많았으며 ‘현 수준 유지’(25.7%), ‘더욱 강화’(20.6%), ‘지나친 대미의존을 탈피’(9.2%)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.



또,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체 63.4%를 차지,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. 이는 민주평통의 2006년 조사결과(56.2%)에 비해 7.2%상승한 수치다.

통일 시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60.7%가 ‘점진적 통일방식’을 선호한다고 답했고 ‘빠른 시일 안에 통일’(18.5%), ‘현재 공존상태를 유지’(14.6%)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.

국민들은 정부가 내년 통일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▲남북정상회담 추진(29.9%) ▲북한 핵포기 유도(21.5%) ▲남북경제협력 활성화(19.5%) ▲민간교류 활성화(9.9%)를 꼽았다. 

〈출처 : 민주평통자문회의〉